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윤희원**

< 次 例 >

- I. 논의에 앞서
- II. 한국어교육 현황
- III.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 IV.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도전 :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교육
- V. 한국어교육 발전의 과제와 전망

I. 논의에 앞서

한국어 교육 수요란, 간단히 요약하면, 한국어를 배우는 이들의 필요와 욕구, 그리고 특정 사회에서 한국어가 필요한 분야와 수준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어 교육 수요를 교육의 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정한 것이 교육과정이며, 교육과정의 바탕은 교육 목표인 바, 실제로 언어를 다루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활동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는 현행 우리나라 교육과정이나 다른 여러 나라 교육과정의 국어 혹은 외국어 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이 두루 담고 있는 항목들로서, ① 말과 글을 통한 표현 및 이해 능력, ② 언어에 대한 기본 지식,

* 본 연구는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주최 제9회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2007. 10. 27)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 수정한 것임.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③ 언어로 표현된 문화(문학 등)의 이해와 감상, ④ 해당 언어권(민족, 국가 등)의 문화에 대한 이해 등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 역시 언어는 다르더라도 공통적인 부분이 매우 많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교육 수요는, 그 언어를 배우는 목적과 직결된다. 한국어의 경우에 대입하면, 이는 ‘한국어 수요’라고 할 수도 있을 터이며, 한국어 교수-학습의 목표라고도 할 터인데, 첫째는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한국어를 사용한 학문 연구를 위한 것이며, 셋째는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통역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국어 교육 수요 가운데에서, 두 번째, 즉 학문 목적 한국어의 문제를 다루되, 비한국학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기실, 비한국학 분야란 그 경계가 참으로 모호한 개념이며, 웅색한 명명이나 여기서는 대학에서 다루는 학문 분야 중 한국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두루 칭하기로 한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 비한국학 분야를 다루는 것은, 한국학 전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은 지당하고 절대적인 필요를 인정받아 왔으나, 여타 분야의 경우에는 비교적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현실적 이유 때문이다. 뒤에서 언급할 유학생 분포를 보아도 그러려니와, 해외 고등교육기관의 한국어 학습자, 국내외 연구기관의 연구 인력을 비롯하여, 해외 여러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며 (혹은, 배워야 하며), ‘학문’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기는 하나, 조금씩 늘어가는 해외 초·중·등교육기관의 한국어교육 및 급작스러운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른바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습(?) 목적 한국어” 교육의 문제도 매우 시급함 과제이기 때문이다.

II. 한국어교육 현황¹⁾

1. 한국어교육의 성격과 특성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2000)에서 ‘국어’를 찾아보면 ‘1) 한 나라의 국민이 쓰는 말, 2) 우리나라의 언어’라고 등재되어 있다. 한민족과 한국의 개념이 거의 동일하였던 과거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국어’라고 지칭할 때는 사전에 제시된 2)의 의미라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한민족의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 및 타민족과의 사회·경제적 또는 문화적 교류가 빈번해짐에 따라 ‘한 국가의 언어’ 또는 ‘우리나라의 언어’라는 의미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어’라고 했을 때 지시하는 대상은 2)의 뜻으로 명확하나 해외동포나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국어’라는 단어가 갖는 개념은 중의적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즉 국어라고 지칭하던 대상을 모어로 하는 경우와 외국어/제2언어로 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논의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일선 초·중·고에서 모국어를 보다 바르고 풍부하게 사용하기 위해 교육하는 것은 국어교육, 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한국어교육으로 통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학계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언어의 위상	학습자	환경	목적
국어	모어	한국인	국내	정의적
한국어	제2언어/외국어	외국인/한국인	국내/국외	실용적/정의적

1)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관련 통계가 나오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연구물 성격의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수치를 인용함.

국어는 국내에서 한국인이 한국인이기 때문에(정의적 목적) 모어로 습득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통용된다. 이에 반해 한국어는 ① 한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이 구체적인 편익을 위해(실용적 목적)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학습하는 경우, ②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가 실용적 또는 정의적 목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경우, ③ 해외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외국어로 실용적 목적을 위해 학습하는 경우 등 보다 복잡한 양상을 지칭할 수 있다.

2. 한국어교육의 현황

(1) 정부 관련 기관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기관은 정부 산하 기관과 기타 사설 단체로 나누어지는데 현재 정부 산하 기관인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외교통상부 등에서도 활발하게 한국어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의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 교사 파견 연수 와 한국어 교사 초청 연수 사업 및 한국어 교원 자격,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등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역시 문화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는 한국어 보급 체계 구축, 한국어교사 인증, 기초 자료 구축,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아래에는 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있다. 국제교육진흥원에서는 한국정부장학생의 선발과 관리, 재외동포교육, 해외 한국어학과 대학생 초청, 한국어교육 웹사이트(<http://www.kosnet.go.kr>)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1997년부터 주관하고 있으며,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시행하던 해외대학에 한국학 및 한국어 객원 교수 파견 사

업과 한국학 연구 지원사업 등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이관되어 규모를 키워가며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동포재단이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외국과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한국을 올바르게 알리고 국제적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자 저변의 확대, 한국어 교원 양성, 교육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한국어 연수생을 초청하는 사업과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재외동포재단에서는 국외 한글학교 지원, 해외동포 모국 연수 지원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교육을 위한 원격교육 사이트인 ‘틴코리아’(<http://www.teenkorean.com>)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국내 한국어 교육 기관 실태

국내에서 한국어교육은 주로 대학 부속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59년에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되어 한국어교육을 시작한 이래 1990년대 중반까지도 10여 곳에 불과하던 한국어교육기관은 현재 기관 수, 규모, 프로그램 측면에서 매우 다양해졌다. 2004년 말 기준으로 70여 곳 정도의 대학 부설 기관에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며 약 7천 명 정도의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현재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상시 개설하고 있는 기관을 지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개설 기관〉

지역	기 관
서울/경기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경기대학교 어학교육원,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김포대학 국제교육원,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상명대학교 한국어언어문화센터,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인하대학교 언어교육원,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강남대학교 평생어학교육원, 평택대학교 사회교육원
충청도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장원대학교 어학교육원, 충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충북대학교 국제어학원,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 호서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한서대학교 어학연수원, 혜천대학 한국어학원
강원도	강릉대학교 한국어교육원,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 관동대학교 국제어학원, 경동대학교 국제어학원
전라도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원광대학교 어학원
경상도	경북대학교 어학원, 대구대학교 국제교류처,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신라대학교 한국어학부,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원,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동아대학교 사회교육원, 부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안동대학교 어학원, 영산대학교 언어교육원,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원, 포항공대 어학센터,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제주도	제주대학교 집중 언어연수 단기 프로그램

(3) 재외동포 교육기관

남북한 인구(7천만)의 9%인 600만 명 정도에 달하는 세계 150여 개국 거주 재외동포를 위한 한국어교육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접근이 민족교육이나 시민교육이나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러나 한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워야 하는 정의적 측면과 재외동포가 갖는 언어적 강점을 이용하기 위한 실용적 측면²⁾을 고려하면 재외동포가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듯 조항록(2005)에 의하면 해외에 설치된 한국학교는 14개국 24개교, 한국교육원은 14개국 35개원, 한글학교는 96개국 1,963개교에 달한다.

〈2003년 기준 재외동포 교육기관〉

지역별	한국학교			한국교육원			한글학교		
	학교 수	교원 수	학생 수	교육원 수	파견 교원수	동포수	학교수	교원수	학생수
일본	4	170	1,682	14	22	638,546 (640,234)	57(46)	155(123)	2536 (1,552)
아주	12	496	3,820	1	1	2,341,190 (2,030,489)	133(111)	1,323 (1,111)	11,754 (10,243)
북미	-	-	-	7	8	2,327,619 (2,264,063)	1,096 (1,085)	8,891 (8,758)	63,554 (64,363)
중남미	3	99	657	3	3	105,643 (111,462)	52(54)	363(410)	3,169
구주, CIS	1	17	70	10	12	652,131 (595,073)	625(593)	1,511 (1,467)	32,981 (30,950)
아·중동	4	38	106	-	-	11,654 (12,488)	31(24)	202(215)	969(994)
계	14개국 24개교	807	6,335	14개국 35개원	46	6,065,129 (5,653,809)	96개국 1,963개교 (96개국 1,923개교)	12,243 (12,084)	113,994 (111,303)

- 2) 미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SAT II에서 제2외국어 과목에 한국어는 일본어나 중국어 보다 늦게 생겼다. 평가 기관에서 자신들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험과목으로 개발한 일본어나 중국어는 현재 수익성이 좋지 않다. 이에 반해 한국의 자금을 끌어 들여 개발한 한국어 과목은 현재 평가기관의 효자종목이 되었다. 교육열이 높은 한국인 동포들은 보다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4) 언어권별 한국어교육 실태

유석훈(2005)의 2002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 한국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총 54개국 395개 대학에 이른다.

〈2002년 전 세계 한국어 강좌 개설 대학〉

일본(120)	오스트리아(2)	브라질(1)	미국(130)	뉴질랜드(2)
스웨덴(1)	중국(40)	필리핀(2)	스페인(1)	호주(10)
체코(2)	싱가포르(1)	캐나다(9)	헝가리(2)	요르단(1)
러시아(8)	유고(2)	우크라이나(2)	독일(7)	모로코(2)
이란(1)	프랑스(7)	폴란드(2)	이스라엘(1)	영국(5)
인도네시아(2)	이집트(1)	베트남(5)	터키(2)	인도(1)
몽골(4)	가나(1)	칠레(1)	태국(4)	네덜란드(1)
파라과이(1)	말레이시아(4)	덴마크(1)	포르투갈(1)	카자흐스탄(4)
루마니아(1)	핀란드(1)	대만(4)	멕시코(1)	홍콩(1)
우즈베키스탄(3)	미얀마(1)	노르웨이(1)	아르헨티나(2)	벨기에(1)
아일랜드(1)	이탈리아(2)	불가리아(1)	총 54개국 (395)	

정치적, 지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 많은 강좌를 개설하고 있음을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미국과 가장 오래된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의 현황을 살펴보자.

미국은 1970년대 말 카터 행정부 이래 계속 강력한 외국어교육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손호민(2005)에 따르면 1971년에는 1969년에 하와이 감리교회에 부설된 하와이 한인사회학교와 1971년에 설립된 인디애나폴리스 한글학교가 있었으며, 컬럼비아, 하와이, 하버드, 버클리, 워싱턴, 인디애나 등 겨우 6, 7개 대학에서 극소수의 학생들이 한국어강좌를 수강했다

고 한다. 그러나 30여년이 훌쩍 넘은 지금 한글학교가 미국 곳곳에 설립되어 1,000여개를 웃돌며 50개가량의 중·고등학교에 한국어 과목이 개설되어 있고 13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강의하고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하와이대학이나 UCLA에서는 한국어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중국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해 문헌상 남아있는 기록은 孫統修의 『華夷譯語』에 나온다. 원본은 남아 있지 않으나 중국 원나라의 火源潔관이 통역관들을 위한 고려어 교과서인 『高麗館譯語』를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그 이후 여러 자료가 확인되는데 근대적 의미의 한국어교육은 1946년 북경대학에 조선어학과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후 1952년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1953년 낙양외국어대학, 1972년 연변대학, 북경 제2외국어대학에 조선어학과가 점차적으로 설치되었다.³⁾ 조선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은 연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은 전 중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II.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1. 국내 유학생 실태

학문 분야 한국어교육을 논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를 대

3) 조항록(2005),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달 과정과 특징 I, 한국어교육 16-1,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pp.252-253.

상으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나,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이번에는, 국내 유학생의 경우로 대상을 좁혀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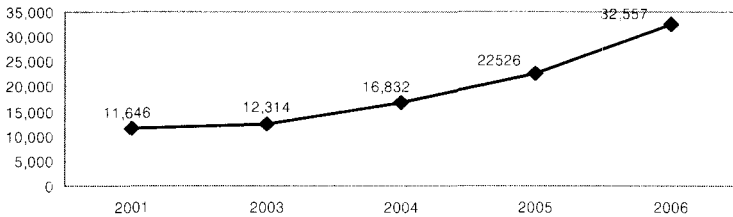
교육인적자원부의 발표⁴⁾에 따르면, 2006년 4월 1일 현재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32,557명으로서 '01년 11,646명에 비해 5년 새 178% 증가하였고, 작년 22,526명과 대비할 경우 44.5% 증가한 수치이다.

〈 연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연 도	2001	2003	2004	2005	2006
학생수(명)	11,646	12,314	16,832	22,526	32,557

(2002년에는 같은 통계가 집계되지 않음)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도 국내 외국인 유학생 세부 현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대학원 등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이 22,624명으로서 전체의 69.5%, 어학연수기관 등 대학 부설 연수기관에 등록한 학생이 9,933명으로서 전체의 30.5%를 차지하고 있다.

4) 이하 교육인적자원부 보도 자료(2006.10.24)

〈 과정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 현황 〉

구분	어학연수	대학	대학원	기타연수	합계
학생수(명)	7,938	15,268	7,356	1,995	32,557
비율(%)	24.38	46.90	22.59	6.13	100

특히 정규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수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단기 어학연수 중심에서 장기 학위과정 중심으로 유학 패턴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정규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연 도	2001	2003	2004	2005	2006
학생수(명)	4,336	7,981	11,121	15,577	22,624
비율(%)	37.2	64.8	66.1	69.2	69.5

전공 분야별로 보면 인문 사회계 유학생이 14,929명으로 45.8%, 이공계 학생이 6,466명으로 19.9%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인문 사회계 편중 현상이 보이고 있다.

IT, 반도체 분야 등 우리나라의 우수 이공계 분야의 지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산업에 필요한 우수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향후 이공계 분야 유학에 대한 유인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전공 분야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어학연수	전 공				기 타	합계
		이공계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소 계		
학생수(명)	7,938	6,466	14,929	1,229	22,624	1,995	32,557
비율(%)	24.4	19.9	45.8	3.8	69.5	6.1	100

그러나 이러한 편중 현상은 학부 과정에서 두드러지며, 석사 31.8%, 박사 67.8%에서 보듯 상위 과정으로 올라갈수록 이공계 유학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 학위과정별 유학생 비율 〉

	학 부		석 사		박 사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인문사회계
학생수(명)	3,470	10,907	1,558	3,339	1,438	683
비율(%)	24.1	75.9	31.8	68.2	67.8	32.2

이상의 통계만 보아도, 인문사회계 전공자의 일부인 한국학 전공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유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학 전공자의 경우에는,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한국어로의 유학이나 한국어를 사용하는 연구 활동의 바탕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마련되나, 비한국학 분야의 경우에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과 섞여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2. 비한국학 분야 한국어교육의 과제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외국어(한국어) 교육이라는 점에서, 여타 분야의 한국어교육과 공유하는 부분이 있고, “학문 목적 한국어”이자 “한국학 분야가 아니라”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특수한 문제점과 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난점을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교육의 목표와 내용구조, 교수학습 및 교재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략하나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비한국학 한국어교육의 목표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상이 누구이건 어떤 분야에 있건 어느 나라 출신이건 “한국어를 잘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자명하다. 문제는,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이고, 실제 교육의 장에서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이다. 즉, 학습자가, (한국학 분야가 아닌) 어떤 분야에서, 어떤 수준의 학문 활동을 하고자 하는지, 학습자의 의도 혹은 동기에 관련된 일종의 철학적인 혹은 매우 실용적인 차원에서, 한국어 관련은 물론, 학습자가 원하는 분야의 관련 지식 체계를 중심으로 학습자와 사회 문화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며 사용할 것인지, 출신 국가에서 생활하며 한국어의 사용은 학문 활동으로 국한될 것인지에 따라서도 세부 목표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학위 과정을 이수할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에는, 한국어의 기본적인 사항에 더하여, 전공 분야 내용 영역의 용어, 전공 분야의 실험 실습 관련 용어와 표현, 컴퓨터 등 기자재와 자료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용어와 표현을 익히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될 것이나, 현지 연구자들의 경우에는, 기자재와 자료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학습은, 목표 간의 우선순위에서 하위에 놓이게 된다.

2) 비한국학 한국어교육의 내용 구조

여기서는, 거의 무한대라 할 한국어 및 전공 분야 관련 지식과 사실 및 기능 가운데서 무엇을 어떻게 선정, 조직하여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심 과제이다.

한국어 교육 내용 구조 연구는 일차적으로 한국어와 한국어교육에 관

련되는 지식과 사실 및 기능의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고 목표에 따라 구조화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교육의 목표와 학습자의 신체적·정신적·지성적 수준과 사회·문화적 요청과 기타 여건에 따라 가르칠 내용을 선정 조직한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한국어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한국어나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끼리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 경제 전공자에게, 경제학 용어, 학설, 현상 등과 관련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떤 순서로 가르칠 것인지,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용어와 학설에 대해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토의 토론 방식, 논문 작성법 등과 같은, 그 분야 학술 활동의 언어적 관행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하는 것이다.

3) 비한국학 한국어교육의 교수 학습 및 교재

교수 학습 방법 영역은, 다른 분야보다는, 전공 학문의 특성에 따른 편차가 적다. 다만, 전공 영역에 따라서는, 풍부한 시각 자료를 갖추고 이를 제시-활용하는 방법을 구안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전공자들에게 컴퓨터를 비롯한 기자재에 대한 한국어를 가르칠 경우, 어휘의 나열보다는 해당 기기의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

교재 역시 여타 분야의 한국어교육과 같이, 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가르칠 방법에 따른다. 그러나 학습자의 전공 영역에 따라, 일상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제시 순서와 방법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용 교재가 해당 전공 분야의 용어집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다양한 어휘 사전이 부족한 현실에서 유용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공계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종래의 자기 소개-인사-가족-계절 방식의 교재 구성이나, 어휘-대화 지문-해설 지문-문법-연

습문제 방식의 단원 구성을 벗어나서, 컴퓨터-기초 학문 분야(수학 물리 등)-공학 기초 방식의 교재 구성과 용어-용례-연습-응용 방식의 단원 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 다만, 학습자의 사정에 따라서 일상어로서의 한국어 교재와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교재 개발에서 또 한 가지 적시해야 하는 바는, 특히 비한국학 분야란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전공 영역을 한꺼번에 지칭하는데, 교재 제작의 비용과 교육의 효율을 생각할 때, 분야마다 각기 다른 교재를 한없이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이다. 분야를 어떻게 나누고 묶을 것인지, 교재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국어 어휘와 전문 용어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에 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IV. 한국어교육의 새로운 도전 :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교육

최근 들어 국제결혼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교육 소외 계층과 새터민(북한 이주민) 가정 자녀의 문제가 사회 통합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측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 및 교육과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 간의 결혼으로 태어난 자녀의 아동 교육 문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문제는 사회 부적응, 한국어에 대한 숙달도 부족, 한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격차 등의 문제로 인한 가정 문제, 학교 문제, 사회 문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한국인에게도 이러한 다문화 가정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국어 교육에서도 이들을 인정한 교육과정이 요구되며 교사 역시 이러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효과

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현황

다문화 가정이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혈통 상 외국인이거나 (전)북한주민인 경우를 말한다. 풀어 말하자면,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포함하는, 이른바 국제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으로 대표되는 외국인가정, 그리고 새터민 가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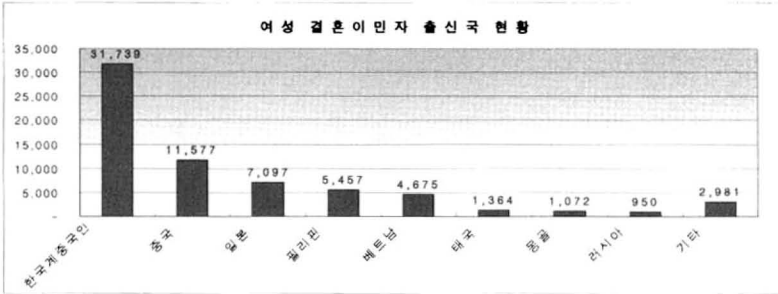
위에서 제시한 다문화 가정 중 국제결혼가정의 비율을 2005년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 비율이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 '05년 13.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총 결혼 건수 중 국제결혼 비율 및 국제결혼가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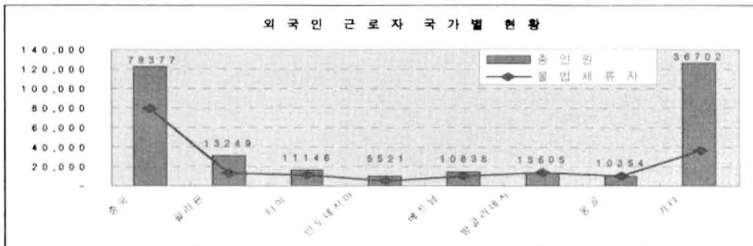
구분	총 결혼 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인원(명)	316,375	43,121	31,180	11,941
비율(%)	100	13.6	9.9	3.7

20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 3,122건으로 전체 결혼 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비율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농어촌 지역만 살펴보면 전체 결혼의 35.9%⁵⁾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한국인 여성이 아닌 외국 여성과 결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다음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5) 2006년 3월 통계청 자료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45,679명이며, 이 중 합법 체류자는 164,887명으로 47.7%에 해당하며 불법 체류자는 180,792명으로 52.3%에 해당한다.⁶⁾ 불법 체류자 규모는 2004년에 조사된 188,000명에 비해 약 7천 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2006년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 사정이 호전되어 일자리가 40만여 개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35.4%로 가장 많으며, 필리핀인이 9.0%, 타이인이 4.8%, 베트남인 4.3%, 방글라데시인 4.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기타 : 미국, 러시아, 일본 순임

6) 2005년 5월 법무부 자료

이러한 현상은 자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나타나는 국제적인 현상이므로 앞으로 그 수의 증가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 않다.

새터민 가정의 경우는 위의 경우와 다소 다른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가정의 저소득 문제 및 자녀의 학교 사회 부적응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실정이다. 2006년 서울대 사범대학에서 연구한 다문화 이슈 페이지에 따르면 새터민 가정의 약 40%는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터민 가정의 31.7%가 무직이며, 취업에 성공했다 해도 업무의 대부분이 장치기계 조작 23.3%, 단순 노무자 10%로 나타나 어려운 가정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

구 분	아버지	어머니
단순노무 종사자	6 (10.0)	15 (23.8)
농업, 임업, 어업숙련 종사자	0 (0.0)	0 (0.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14 (23.3)	2 (3.1)
판매 종사자	4 (6.7)	8 (12.7)
준 전문가	0 (0.0)	0 (0.0)
사무종사자	2 (3.3)	2 (3.1)
전문가	0 (0.0)	2 (3.1)
의회의원, 고위임원 및 관리자	0 (0.0)	0 (0.0)
무직	19 (31.7)	31 (49.2)
기타(사망, 복에 거주)	15 (25.0)	3 (4.8)
계	60 (100.0)	63 (100.0)

이러한 가정 형편은 새터민 자녀가 학교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학교 성적의 부진은 학교 중도 탈락률을 증가시키고 있다.

2. 다문화 가정 자녀의 교육과 한국어교육 문제

다문화 가정의 교육은 국제결혼의 경우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왜냐하면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곧 아동의 한국어 능력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또한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모국어에 대한 자부심 고취는 자녀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 나라에 대한 이해는 곧 자녀의 정체성 혼란이 야기되는 청소년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인 아버지 또한 부인의 자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인이 가질 수 있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편견 및 문화 이질성 극복을 위한 교육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말한다.

국제결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자녀의 수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만 해도 총 7,998명이다.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학생이 11.6%, 고등학생이 3.5%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인 6,69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났다.⁷⁾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째, 언어 능력의 부족으로 학습부진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국제결혼가정 2세들은 말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한국말이 서투른 외국인 어머니의 교육 하에 성장하기 때문에 언어 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

7) 2005년 복지부의 국제결혼 이주 여성 실태 조사 자료

는다. 따라서 언어 능력의 부족은 곧 학습 부진을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자녀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말미암아 구어보다는 문어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둘째,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경우, 정체성에 있어서 심각한 혼란을 경험한다. 이는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소속감의 결핍과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결국 한국어(혹은 어머니의 모어) 사용 능력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셋째, 학교에서 집단따돌림 등으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적 충격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10명 중 2명 정도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단순히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는 학생의 수가 가장 많으며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언어 문제로 소외를 당하거나 피부색 등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외국인 근로자 부모에 대한 교육과 이주한 자녀의 연령에 따른 한국어 및 문화 교육이 학교 및 다양한 민·관 단체를 통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새터민 자녀의 경우 학교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중도 탈락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 역시 언어적 차이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1999년에서 2004년 3월까지의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의 비율은 초등학생이 1.1%인데 반해,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6.2%, 고등학생은 14.5%에 이른다. 남한 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중학생 1.1~1.9%이고, 일반계 고등학생 1.1~1.7%, 실업계 고등학생 4.0~5.1%이다⁸⁾. 이에 비해 새터민 중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남한 학생의 8~15배이며, 새

8) 2004년도 교육 통계 연보 자료

터민 고등학생의 중도 탈락률은 남한 일반계 학생의 8~13배이고,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3~4배에 달한다. 새터민 자녀들은 낮은 학교 성적으로 인해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고,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올라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는 말씨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이질성으로 학교 적응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이 “학술어”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감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학업을 위해 ‘정상적’인 한국어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⁹⁾ 그러나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까지 외국어 사용 환경에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혹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경우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한국어 환경에서 살기 때문에 취학 연령대에 이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고급 어휘와 표현에 노출되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학습 부진이나 학교 생활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어린 시절에 비정상적(?)인 한국어를 접하게 되어 한국어 사용 면에서 말씨가 다른 점 역시 어려움을 겪게 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부기관이나 민간단체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한국어 교재 중 상당수는 이제까지 만들어 온 일반적인 한국어 교재를 어휘와 표현 면에서 ‘어린이용’으로 재구성한 것처럼 되어 있어서,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수요에 정확히 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한국어 교재는, 언어 결핍에 의한 학습 부진을 해결할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학습 부진이란 ‘국어과’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전 교과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관행을 담

9) 물론 이들의 부모, 즉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의 한국어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이나 본고에서는 논외로 한다.

야 한다. 또한, 가정에서의 문화적 결손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문화적인 면이 보강되어야 한다.

V. 한국어교육 발전의 과제와 전망

한국어를 일부 한국학자들만이 배우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는 ‘학문/학술 분야의 한국어’로 논의를 제한했으나, 그렇게 해도, 수많은 분야를 배우고 연구하기 위한 한국어의 교육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인 다문화 가정 구성원의 한국어교육도 관심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 그리고 한국어가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변화를 겪게 되더라도 한국어교육의 계획과 실천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방향은 사실상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어의 수요와 교육 실천에 바탕을 둔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언제나 문제이자 과제이며, 실제로 한국어교육의 계획과 실천을 위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는 엄청나게 많다.

특히, 종래의 경우에 비해서, 다양화된 한국어 수요를 상세화하고 각각의 경우에 알맞은 한국어교육을 설계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되었다. 이는 한국어교육의 양적 성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나, 한국어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반이다.

한국어교육 담당자가, 각급 학교의 국어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영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수준이므로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 고등 교육기관의 유학생이나

전문적인 연구자를 위한 특정 영역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성과 가능성의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의 한국어교육에서건,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요구(needs)와 욕구(wants)의 정확한 파악, 한국어교육에 관한 최소한의 심의·검정 제도의 운영, 자격을 갖춘 인력 양성, 한국어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교재와 교수법의 개발 등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국내 외국인 백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상 장치와 사회적인 측면에서 통합 장치, 교육적인 측면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참고문헌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5),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 교육 실태 조사, 2006년도 교육
 인적자원부 정책연구과제2006-이슈-3.
 손호민(2005), 「세계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한국
 문화사.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
 32(3), 한국교육개발원.
 유석훈(2005), 「국내 한국어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한국
 문화사.
 윤희원(2006), 「한국어 교수-학습론」, 『한국어교육(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
 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과정.

* 본 논문은 2007. 11. 10. 투고되어, 2007. 11. 15.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확정
 되었음.

조영달, 윤희원, 박상철(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조사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조항록(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사」, 『한국어교육론 I』, 한국문화사.

한국교육개발원(2005),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

Morse, A.(2005), *A look at immigrant youth : prospects and promising practices*, Children's policy initiative: A collaborative project on children and family issues,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Education matters : Children of immigrants : how well do they do in school?, Statistics Canada catalogue number81-004-XIE.

Beavers, L., & D'Anico, J.(2005), *Children in immigrant families : U.S. and State-level findings from the 2000 Census*,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and th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Assemblée parlementaire(2003), *La situation des jeunes migrants en Europe*, Doc. 9645.

Pratique langagières des enfants d'immigrés dans leurs familles, Centre d'Etudes et de recherches sur la planification linguistique, université Paris V.

Silberman, R.(2004), *Le devenir des enfants de familles defavorisees en France*, Carré des Sciences.

Vidal, D., & Bourtel, K.(2005), *Enfants d'immigrés, enfants discriminés*.

■ 국문초록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윤희원

국내외에서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한국어 학습 목적과 목표는 매우 다양한데, 이들 중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에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학문 분야는, 크게 한국학 분야와 비한국학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정규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원의 대부분이 한국어/한국학 전공자임을 생각할 때,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수요에 대해 살피고,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으로 비한국학 분야 한국어교육의 목표와 내용 구조, 교수 방법 및 교재에 대해 논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 떠오르는 문제인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문제에 관한 논의를 덧붙였다.

[주요어]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실태, 학문분야 한국어교육, 비한국학 분야의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수요, 다문화교육,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

■ Abstract

On Teaching of Academic Korean for the Learners
with None-Korean-Studies Major

Yoon, Hi-won

Purpose of learning a language varies from learner to learner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can not be an exception. The present paper deals with teaching of Korean for academic purposes, more specifically, for the learners whose major is not (or, will not be) the Korean Studies, by reviewing relevant statistics, examining issues in objectives, content structure, teaching and learning methodologies and teaching materials. In addition, teaching of Korean for the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is dealt with, for the purpose of raising an issue regarding a new challenge of the field.

[Key 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Demands in Korea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Academic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